■ 르포 수확기 전남 농촌 들녘

알곡 없고 쭉정이만… 판로까지 막혀 '한숨'

가을걷이로 신명나야 할 농촌 들녘이 풍년가 대신 농민들의 깊은 한숨으로 가득하다. 수확 중인 나락은 지난 9월 한 달간 해가 제대로 뜬 날이 고작 5일뿐이었던 탓에 제값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떨어졌다.

지난 12일 나주시 산포면 화지리 광주~나주간 국도 비상활주로에 나락을 말리고 있는 강기춘(60)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텅 빈 들녘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씨는 지난해 2만3천여㎡의 논에서 210 가마(80㎏)의 쌀을 수확해 1천400만원을 손에 쥐었지만 올해는 절반도 건지기 힘들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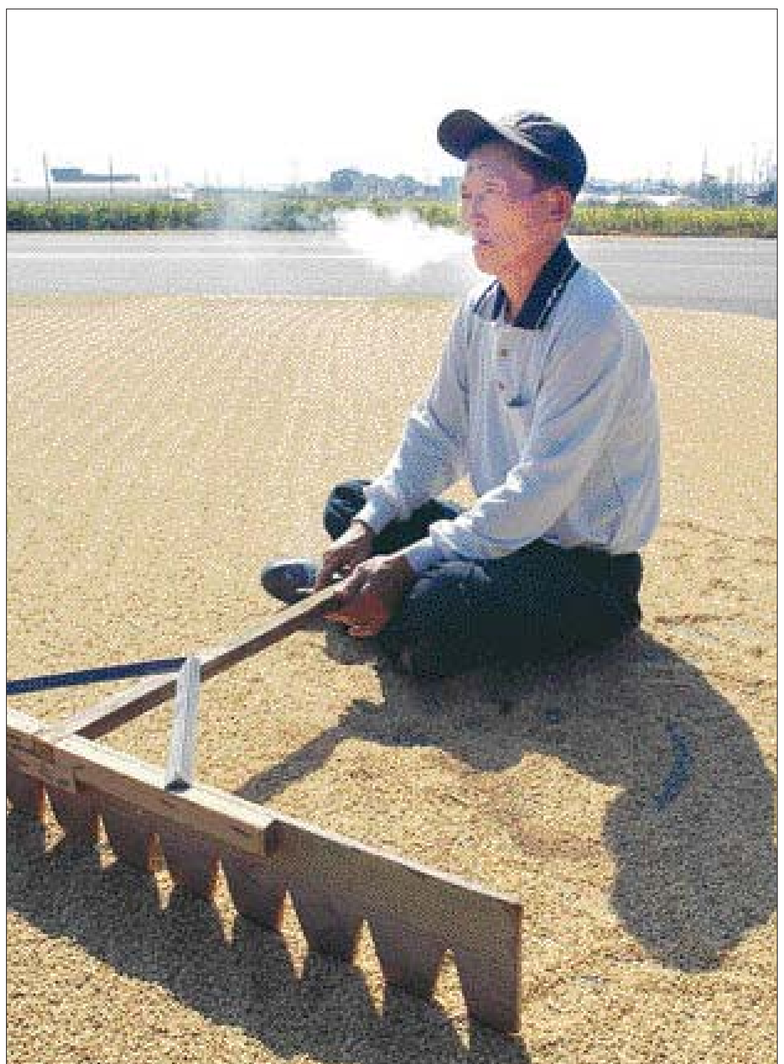
"올 농사를 망쳐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와 농협 수매에서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됐소. 결혼한 세 딸이 시댁 친척들에게라도 팔아보겠다고 해서 나락을 말리고는 있지만 살아갈 방도가 없어 울화통이 터지요."

농민들의 또 다른 걱정은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지난해 350만석(1석 144㎏)보다 50만석 줄어든 300만석으로 책정한 점. 광주·전남지역 35곳의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은 올해 28만t의 쌀을 매입하지만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천~1만원 가량 떨어진 ▲특등급 4만5천원 ▲1등급 4만~4만2천원 ▲2등급 4만~3만8천원 ▲등외품 3만~3만5천원으로 책정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최영추(55)씨는 "제대로 여물면 가마니에 80%만 쌀을 채워도 40㎏가 나오는데 올해는 쭉정이가 많아 가마니가 터질 정도로 넣어야 적정 무게가 나온다"며 "등급별 가격이 내린데다, 품질마저 나빠 실질적인 손해는 쌀 40㎏당 1만~2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고흥군 풍양면에서 9만9천여㎡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 김근호(35)씨는 "7년 농사 지었는데 남는 거라곤 2억원의 빚뿐"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을 1천만 석으로 늘리고, 농협의 등급별 매입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근 쌀값이 떨어지고 판로가 막히자 나주시 산포면 화지리 광주~나주간 국도 비상활주로에서 올해 수확한 나락을 말리던 한 농군이 허탈한 듯 줄담배를 피고 있다. /나주=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운전자 아니면 음주측정 불응 처벌 못해"

대법원 판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실제 차 운전자가 아니면 측정에 불응해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타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불응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며 "타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이 동승해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성 매수 600여명 "나 떨고있니?"

광주 스포츠마사지 3곳 전표 확보

공무원·회사원 등…전원 소환 조사

경찰이 광주지역 유명 스포츠마사지 등 유사 성매매업소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0여 명의 명단을 확보, 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달 말께 광주시 남구 K·북구 H·서구 S 스포츠마사지 등 3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성매매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카드 매출 전표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자 60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전화로 소환 통보한 뒤 이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성 매수자 중에는 광주시청·전남도청 공무원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 공무원·건설업체 직원·대학생 등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6만~18만원의 이용료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이곳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포함한 성 행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사 성매매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은 경찰의 단속 업소가 어느 곳인지, 혹시 그곳에서 신용카드를 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 매수자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검찰에 송치하면 성매수 전과 유무와 이용 횟수 등 죄질의 경중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훈방조치·보호관찰소 등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람 잡은 농기계

보성서 남편 몰던 트랙터에 부인 숨져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오후 3시께 보성군 미력면 인근 논에서 최모(51·미력면 용정리)씨가 몰던 트랙터에 부인 이모(47)씨가 깔려 숨졌다.

최씨는 "가을걷이를 하려고 논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트랙터가 지나갈 곳의 나락을 베고 있던 부인을 최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하루 전인 13일 오전 8시께는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전모(10)군 등 초등학생 3명이 윤모(48)씨가 몰던 농업용 4륜 화물차에 치여 전군이 숨지고, 나머지 2명이 크게 다쳤다.

윤씨는 경찰에서 "골목길에서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밤 10시께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에서 영업용 택시(운전사 김모·56)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마모(48)씨의 콤바인을 들이받아 택시 승객 노모(18·여고 3년)양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륜 오토바이 나주호에 '풍덩'

사륜 오토바이가 호수로 추락, 1명이 숨졌다.

14일 오후 3시23분께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나주호 상류에서 오토바이가 추락, 타고있던 운전자 강모(60·화순군 한천면)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함께 타고있던 같은 마을 고모(75)씨는 얕은 물에 빠져 다행히 화를 면했다.

경찰은 "낚시를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한쪽으로 세워두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갑자기 미끄러졌다"는 고씨의 말에 따라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벅스' 도메인 압류

전 간부 임금 지급 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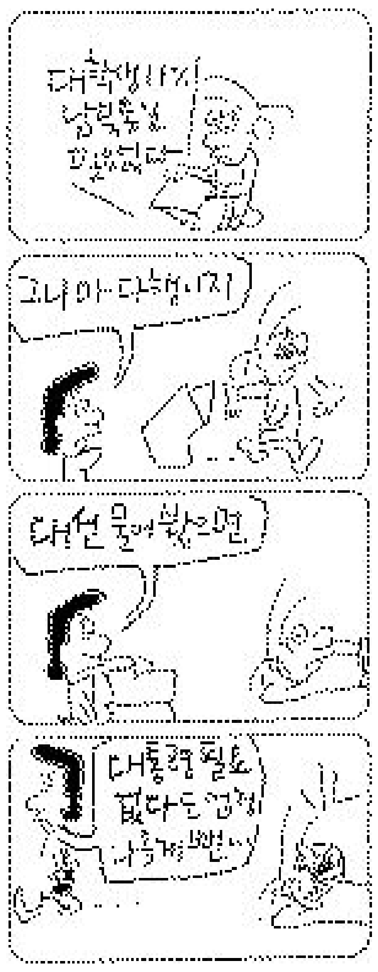
인기 음악파일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벅스'(www.bugs.co.kr)가 부당해고된 전 간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압류당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4년 '벅스'로부터 부당해고된 박모씨 등 4명이 "약속된 임금 1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도메인에 대한 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결정이 이뤄지면 '벅스' 도메인에 대한 매각 결정이 이뤄지게 되며, 이후 입찰을 통해 도메인은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벅스' 도메인의 가치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벅스'는 2003년 이래 적자가 쌓여 임금이 체불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내분을 겪었다. /연합뉴스

나우찬 김종두 〈7331〉



'생선 머리 다툼'에 흉기 휘둘러

쌍나팔

○…'생선 머리'를 둘러싼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미얀마 선원이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광양시 태인동 광양제철 제품부두에 정박 중인 제주선적 2천400t급 화물선 G호에서 미얀마인 T(33)씨가 동료 K(38)씨의 턱과 오른팔을 흉기로 찔렀다는 것.

○…T씨는 식당에서 국솥에 들어있는 생선 머리를 혼자 먹으려는 K씨를 발견, "나눠 먹어야지 혼자 독차지하면 되겠느냐?"며 시비를 벌였는데, 경찰은 T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당시 G호에는 한국인 5명과 미얀마인 6명 등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K씨는 광주 기독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신경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여수=강성훈기자 kangsw@